

사회심리학적 요인들, 흡연습관, 운동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기형¹ · 권용만²

¹도로교통공단 · ²조선대학교 컴퓨터통계학과

접수 2014년 10월 23일, 수정 2014년 11월 18일, 게재확정 2014년 12월 8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흡연습관과 운동습관과 같은 운전자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음주운전자의 사회심리학적 특성 중에서 행동통제력지각이 음주운전의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뒤이어 음주운전의 의도에서 흡연습관, 운동습관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습관과 운동습관과 같은 운전자의 생활방식이 음주운동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인 규정보다 음주운전의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에서 금연습관과 운동습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주요용어: 사회심리학 요인, 운동습관, 음주운전 의도, 흡연습관.

1. 서론

경제 성장은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증가를 가져왔고, 자동차의 증가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 운전면허취득인구의 증가, 교통사고의 증가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직도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습관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증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잘못된 음주문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술을 통해 인간관계의 친숙성을 높이려 하고 있고,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음주에 따른 사소한 실수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이에 따른 결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 정책부서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였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일반국민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교통사고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음주라는 선행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개인의 음주행위는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음주행동이나 음주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을 통한 접근보다는 다차원적 음주운전유발행위 분석 등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 본 논문은 2012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¹ (500-789)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01, 도로교통공단, 조교수.

² 교신저자: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컴퓨터통계학과, 부교수.

E-mail: ymkwon@chosun.ac.kr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의식개선 이외에 생활습관변화 및 효과적인 강화방법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처벌의 강화, 운전자의 심리, 음주습관과 음주운전 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음주운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 즉 행동통제력 지각, 예견된 후회, 음주운전 태도, 주관적 규범 외에 운전자의 생활습관, 즉 운동습관과 흡연습관이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3절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대상, 연구도구, 자료분석방법 그리고 설문지 구성의 신뢰성 및 타당도를 알아본다. 4절에서는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 외에 운전자의 생활습관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목표

2.1. 선행연구

운전자의 여러 운전행동들 중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및 간접 원인들 중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착오나 실수로 인한 운전행동이기는 보다는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심리사회적 변인들 중 음주운전 의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주요한 예측변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측변인과 관련된 억제이론, 수치이론,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음주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 통제론적 입장의 억제이론에 근거한 정책이 발달하여 왔다. 억제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하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이득보다 법적 처벌로 받는 고통이 크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Min 등, 2000).

1980년대 중반 이후 비공식적인 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죄의식, 수치심, 내면화된 규범 등을 도입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대에 수행된 많은 연구들(Berger와 Snortum, 1985; Grasmick 등, 1993)은 법 지식이나 체포의 위협, 처벌의 엄격성 등은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도덕적 태도는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면서 내면화된 규범이나 타인들을 의식한 비공식적 통제에 의한 억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Berger와 Snortum (1985)도 기존의 억제연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도덕적 요소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설명하였고, Grasmick 등 (1993)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치심이 음주운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shbein과 Ajzen (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 (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의도적 행동의 근접 결정요인은 행동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러한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라는 두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통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위험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만으로는 음주운전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있어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많은 행동들은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수준 즉, 행동통제력 지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jzen (1985)은 TR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동통제력 지각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또한 행동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안하였다. TPB를 검증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행동통제력 지각 요인을 포함시키면 더 잘 예측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Ajzen, 1991; Shin 등, 2006).

TRA나 TPB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같은 습관행동을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Bentler와 Speckart (1979)는 태도와 행동간에 직접적인 인과경로가 추가되고 과거행동 변인을 포함시킨 대안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 모형에서 과거행동은 의도에 직접 및 간접 경로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후속 행동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Triandis (1977)는 과거행동 대신에 습관을 ‘자동적이어서 자기 지시 없이 일어나는 상황-특정적 결과’라고 정의하고 과거에 그 행동을 수행하였던 횟수로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행동은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갖는 사람일지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던 과거경험이 많다면, 이 경험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berg (1993)가 수행한 조사 연구 결과, 음주운전 의도는 태도, 사회적 규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이외에도 음주습관에 의해서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외에도 예견된 후회의 경우, Newnam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통계적 변인들과 TPB 변인들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음주운전 의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2.2.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행동의 발생과정을 고찰하여 심리적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 (TPB; Ajzen, 1985, 1991)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지각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계획된 행동이론의 대안 이론에서 제안되고 있는 습관 및 예견된 후회 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Bentler와 Speckart (1979)는 과거행동은 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후속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Triandis (1977)는 과거행동 대신에 습관, 즉 음주운전에 대한 과거경험 횟수가 많은 경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음주운전도 일종의 습관행동이라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동과 습관으로 생활습관도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생활습관 중에 흡연습관과 운동습관이라는 새로운 요인들이 더해졌을 때 음주운전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설문조사는 2013년 상반기 동안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들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를 완성하지 못한 자료 28부를 제외하고 372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음주운전 의도 4개 문항과 심리사회적 요인들 14개 문항은 선행연구로 Shin 등 (2008)가 사용하였던 도구를 참고로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음주운전 의도는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정하도록 한 문항들이다.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4개 요인 (행동통제력 지각, 예견된 후회, 음주운전 태도, 주관적 규범)으로 행동통제력 지각은 음주운전 행동을 하기가 쉽거나 어려움을 지각하는 수준으로 4개 문항, 예견된 후회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결과에 대한 후회 정도를 평정하도록 한 문항으로 4개 문항, 음주운전 태도는 음주운전 위험성의 지각된 결과 정도를 평정하도록 한 문항으로 3개 문항, 주관적 규범은 주변사람들이 음주운전행동에 대해서 미치는 사회적 영향으로 3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생활습관은 2개 요인 (흡연습관, 운동습관) 7개 문항으로 흡연습관은 직·간접 흡연을 하는 습관 정도를 평정하도록 한 문항으로 4개 문항, 운동습관은 알맞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 정도를 평정하도록 한 문항으로 3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리커트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주운전 의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의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3.2. 자료분석방법

먼저 구성개념 타당성 (validity)를 알아보는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문항들을 기초로 각 구성개념들의 신뢰성 (reliability)를 크론바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프로그램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생활습관 (흡연습관, 운동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Hong, 2014; Park과 Choi, 2014).

3.3. 설문지의 신뢰성 및 타당성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인자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증명하는 구성타당도의 형태이므로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Table 3.1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about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Total Cronbach's α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I'll drive even if I was drunk If it is difficult to catch a taxi.	0.871	.779	.794	2.506	62.646
I'll drive even if I was drunk If an emergency occurs.	0.834	.692			
I will not have to leave the car even if I was drunk.	0.733	.718			
I will drive even if I drank alcohol if I think I was not drunk.	0.718	.780			

Table 3.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about the sociopsychological aspects

Factor name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Total Cronbach's α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Factor 1; Perceptionof behaviour controls	I have self-confidence about I will not cause a traffic accident even if I drink and drive.	0.818	.766	.850	3.208	22.915
	I can drive a car safely even if I drink and drive.	0.809	.780			
	I have self-confidence about I will not caught a clampdown on drunk drivers even if I drink and drive	0.781	.846			
	To me that drinking and driving is easy	0.732	.829			
Factor 2; Predicted regrets	I will regret if traffic accidents occurred because of drunk driving	0.875	.785	.836	2.828	20.199
	I will regret if I was caught to a clampdown on drunk drivers	0.867	.691			
	I will have a economic damage if I get fine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drunk driving	0.699	.801			
Factor 3;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My family will be sick mind if I have a traffic accident	0.686	.832	.771	2.250	16.073
	Drinking and driving is the act of murder	0.817	.767			
	The penalties for drunk driving should be strengthened	0.808	.698			
Factor 4; Subjective regulations	It is dangerous to drink and drive	0.770	.630	.614	1.903	13.591
	Drinking together encourages people to drink and drive	0.892	.456			
	I drink driving along the others	0.665	.533			
	Nobody stop my drink and drive	0.602	.563			72.777

측정 문항에서 심리적 개념인 경우 요인들 간에 완전 독립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축인자법 (principle axis factor method)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회전방법으로 오브리민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교되는 다른 방법으로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method)과 베리맥스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은 1.0이상,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신뢰도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 알파 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Table 3.1~Table 3.3에서 측정 문항의 각 하위요인들의 크론바 알파는 모두 0.6이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었다.

Table 3.1은 음주운전 의도에 관한 4개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요인에 대한 분산설명력은 62.646%, 요인부하량은 최저 0.718이었다. 신뢰성 검증을 위한 크론바 알파는 0.794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었다.

Table 3.2에서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4개 요인에 관련된 14개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 성분분석은 4개 요인별로 각각 한 것이다. 심리사회적 변인들은 4개 요인들로 묶였으며 4개 요인들에 의해 72.777% 설명되어지고 있다. 요인 1은 행동통제력 지각으로 크론바 알파는 0.850, 요인부하량은 최저 0.732이었다. 요인 2는 예견된 후회로 크론바 알파는 0.836, 요인부하량은 최저 0.686이었다. 요인 3은 음주운전 태도로 크론바 알파는 0.771, 요인부하량은 최저 0.770이었다. 요인 4는 주관적 규범으로 크론바 알파는 0.614, 요인부하량은 최저 0.602이었다.

Table 3.3에서생활습관은 2개 요인에 관련된 7개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성분석은 2개 요인별로 각각 하였다. 생활습관은 2개 요인들에 의해 73.342% 설명되어지고 있다. 요인 1은 흡연습관으로 크론바 알파는 0.822, 요인부하량은 최저 0.678이었다. 요인 2는 운동습관으로 크론바 알파는 0.882, 요인부하량은 최저 0.879이었다.

Table 3.3 Result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about to the life style

Factor name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Total Cronbach's α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Factor 1; Smoking habit	I often smokes cigarettes	0.919	.706	.822	2.662	37.461
	Every time I drink I want to smoke	0.889	.714			
	I want to smoke if I look at a smoking scene in a movi	0.703	.817			
	A large number of people all around me is smokers	0.678	.813			
Factor 2; Exercise habit	I am often a sweaty exercise	0.902	.831	.882	2.512	35.881
	I always warm up and warm down during exercise	0.897	.822			
	My exercise is designed to suit my body conditions	0.879	.844			
						73.342

4. 연구결과

4.1. 음주운전 의도, 심리사회적 요인들, 생활습관과 상관분석

요인분석 결과 Table 3.1~Table 3.3에서 요인들 (factors)은 총 7개 요인들 즉, 음주운전 의도, 심리 사회적 요인들에 해당되는 4개 요인 (행동통제력 지각, 예견된 후회, 음주운전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생활습관에 해당되는 2개 요인 (흡연습관, 운동습관)으로 나타났다. 7개 요인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1은 문항별 7점 척도로 측정된 7개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

차이다. Table 4.2는 7개 요인별로 측정 문항 (variable)들의 평균을 내어 상관분석 한 결과 상관계수이다. Table 4.2에서 음주운전 의도와 나머지 6개 요인 간에 유의수준 1%에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사회적인 요인들과 생활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4.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factor

Factors	Mean	Standard deviation
Intentions of drink-driving	2.5847	1.44994
Perception of behaviour controls	2.7379	1.50231
Predicted regrets	6.7056	0.74496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5.6452	1.40959
Subjective regulations	2.4301	1.35568
Smoking habit	3.8911	1.77905
Exercise habit	3.7634	1.65961

Table 4.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Correlation coefficient						
	Intentions of drink-driving	Perception of behaviour controls	Predicted regrets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Subjective regulations	Smoking habit	Exercise habit
Intentions of drink-driving	1						
Perception of behaviour controls	.520**	1					
Predicted regrets	-.283**		1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325**	-.316**	.457**	1			
Subjective regulations	.337**	.415**	-.093	-.084	1		
Smoking habit	.223**	-.004	.096	.095	.009	1	
Exercise habit	-.249**	-.010	.111*	.081	-.082	-.225**	1

p-value : ** <0.01, * <0.05

4.2.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생활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평가

앞서 4.1절에서 상관분석 결과 음주운전 의도와 다른 요인들 간에 유의수준 1%에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의도와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요인 (행동통제력 지각, 예견된 후회, 음주운전 태도, 주관적 규범)과 생활습관 (흡연습관, 운동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4.3.에서 1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심리사회적 요인들, 즉 행동통제력 지각, 예견된 후회, 음주운전 태도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음주운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3에서 2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심리사회적 요인들 외에 생활습관, 즉 운동습관과 흡연습관도 음주운전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설명력은 R제곱=0.335로 33.5%이고 2단계 설명력은 R제곱=0.421로 42.1%이다. R제곱의 변화량은 0.086으로 설명력이 8.6%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심리사회적 요인들 외에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한 요인인 운동습관과 흡연습관이라는 생활습관이 음주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2.281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3에서 표준화 베타 (standardized beta)를 주목해서 보면 음주운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데 행동통제력 지각이 음주운전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흡연습관, 운동습관, 예견된 후회, 주관적 규범, 음주운전 태도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징 중 행동통제력 지각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인 예견된 후회, 주관적 규범, 음주운전 태도보다 운전자의 생활습관인 흡연습관과 운동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o assess the relative influence of psychosocial and lifestyle variables

Step	Factors	B	Standard error	Standardized beta	t	p-value	Statistic
1	(constant)	3.713	0.607		6.115	.000	R-square=.335,
	Perception of behaviour controls	.379	0.048	.392	7.970	.000	Adjusted
	Predicted regrets	-.274	0.093	-.141	-2.935	.004	R-square=.32,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127	0.051	-.124	-2.488	.013	F=46.179,
	Subjective regulations	.161	0.050	.151	3.210	0.001	p<.001
2	(constant)	3.644	0.580		6.279	.000	
	Perception of behaviour controls	.383	0.045	.396	8.585	.000	R-square=.42,1
	Predicted regrets	-.274	0.088	-.141	-3.117	.002	Adjusted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135	0.048	-.131	-2.809	.005	R-square=.411,
	Subjective regulations	.143	0.047	.133	3.026	.003	F=46.179,
	Smoking habit	.173	0.034	.213	5.149	.000	p<.001
	Exercise habit	-.140	0.036	-.160	-3.863	.000	

5. 결론 및 제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운전자에게까지 확산추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를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적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요인들, 즉 행동통제력 지각, 예견된 후회, 음주운전 태도, 주관적 규범 등에 관한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심리사회적 요인들 외에 새로이 제안한 요인인 운동습관과 흡연습관이라는 생활습관이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심리사회적 요인들 외에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한 요인인 운동습관과 흡연습관이라는 생활습관이 음주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의 심리사회적 요인들 중에 행동통제력 지각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인 예견된 후회, 주관적 규범, 음주운전 태도보다 운전자의 생활습관인 흡연습관과 운동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의식과 함께 운전자의 흡연습관과 운동습관이라는 생활습관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과 운동습관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줄여나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흡연습관과 운동습관 외에 다른 생활습관들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에 운전자들의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면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berg, L. (1993). Drinking and driving: Intentions, attitudes and social norms of Swedish male driver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5**, 289-296.
- Ajzen, I. (1985).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Springer, Heidelberg.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entler, P. M. and Speckart, G. (1979). Models of attitude-behavior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86**, 452-464.
- Berger, D. E. and Snourtum, J. R. (1985). A structural model of drinking and driving: Alcohol consumption, social norms, and moral commitments. *Criminology*, **24**, 48-69.
- Fishbein, M. and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John Wiley & Sons, New York.
- Grasmik, H. G., Bursik, R. J. Jr. and Arneklev, B. J. (1993). Reduction in drink driving as a response to increased threats of shame, embarrassment and legal sanction. *Criminology*, **31**, 41-67.
- Hong, Y. W. (2014). A study on the invigorating strategies for open government data.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769-777.
- Min, S. H., Park, K. S., Park, G. W., Gi, G. D. and Jeon, Y. S. (2000). *Theory of criminology*, Jisan Publisher, Seoul.
- Newnam, S., Watson, B. and Murray, W. (2004). Factors predicting intentions to speed in a work and personal vehicl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7**, 287-300.
- Park, C. and Choi, H. S. (2014).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tial on a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complex sample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829-846.
- Shin, Y. G., Kang, S. C. and Rhu, J. B. (2008). *A Study on psychosocial determinants and countermeasures on drinking and driving(I)*, Road Traffic Authority, Seoul .
- Shin, Y. G., Rhu, J. B. and Kang, S. C. (2006). Main psychological factors contributing to speed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4**, 85-94.
- Triandis, H. C. (1977).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Wiley-Blackwell, New York.

Influence of sociopsychological aspects, smoking habit, exercise habit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Ki Hyeong Lee¹ · Yong Man Kwon²

¹Road Traffic Authority

²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Chosun University

Received 23 October 2014, revised 18 November 2014, accepted 8 December 201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in order to uncover ways to reduce the number of motor accidents caused by drink-driving. We examined sociopsychological aspects as well as driver's life styles such as smoking habit and exercise habit. Perception of behaviour controls among drink-driver's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ad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followed by influence of smoking and exercise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This finding indicates that driver's life style such as smoking habit or exercise habit influences more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than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or subjective regulations, which affirms that driver's life style such as smoking habit or exercise hab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rehabilitative curriculum for drink-drivers should include a program to diminish drink-driving through nonsmoking and exercise habit.

Keywords: Exercise habit, intentions of drink-driving, smoking habit, sociopsychological aspect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hosun University Research funds, 2012.

¹ Assistant professor, Road Traffic Authority, Gwangju 500-789,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Chosun University, Gwangju 501-759, Korea. E-mail: ymkwon@chosun.ac.kr